

# 충성대신문

제 197호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홈페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충성대신문

- |         |                          |         |              |
|---------|--------------------------|---------|--------------|
| 02 학교소식 | 육군3사관학교 창설 제54주년 기념행사    | 08 생도광장 | 회랑 커맨디프 경연대회 |
| 03 학교소식 | 한국화생방방아학회 추계 컨퍼런스 우수상 수상 | 10 오피니언 | 사회 저명인사 칼럼   |
| 04 학교소식 |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2022 충성제' | 14 동문소식 | 동문(同門)의 소리   |
| 06 생도광장 |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 16 발전기금 | 발전재단 소식      |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방성대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논설위원 황수현 최재호 민병후 정병삼 / 편집담당 김진규 / 편집국장장생도 김수현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197호 사진제공 및 편집 : 상병 이청하, 송동익, 일병 김세중, 김영우, 설영환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 호국간성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창설 제54주년 기념행사

생도 가족 및 친지 등 함께하며 의미 되새겨  
29기(30주년), 37기(20주년), 47기(10주년)  
임관 기념행사 병행

지난 10월 14일,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인 육군3사관학교의 창설 제54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방행사로 전환하여 시행하였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학교 내 충성연병장에서 생도를 비롯한 생도 가족 및 친지, 출신 동문 등 약 1,200여 명이 함께 참석하여 창설기념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성화대 점화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생도 명예제원 ▶학교장 기념사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생도들은 행사의 백미(白眉)라고 표현되는 분열 간 절도 있고 일사분란한 모습을 선보



여 참석한 생도 가족 및 내빈들의 아낌없는 찬사와 힘찬 박수를 받았다.

학교장(소장 방성대)은 기념사를 통해 "학교는 지난 54년간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장교를 양성해 오면서 도약과 성장을 거듭해 왔다."라며, "창설과 발전의 반세기를 반추하면서 앞으로도 육군의 미래 주역이 될 생도들이 정에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결집해줄 것"을 강조했다.

소령 이상민



## 개교 54주년 제24회 학술세미나 개최

미래전에 대비하는 방위산업 발전방안과  
사이버전의 양상 토의



▲ 충성대 학술세미나 참가자들의 행사 진행 사진

개교 54주년을 맞은 학교는 지난 10월 21일 '팬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24회 충성대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교장(소장 방성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미래전에 대비하는 군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방위산업 발전 및 사이버전 대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충성대연구소장(중

령 황수현)을 비롯한 학교 간부 및 생도 등 25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2개의 주제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했다. 1주제는 박정환 교수(경제경영학과장)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위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세계 방산시장 동향 및 수출 경쟁력 진단과 방산 수출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주제에서는 박동휘 교수(군사사학과장)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전'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성대연구소장(중령 황수현)은 "올해는 팬데믹이라는 시대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미래전에 대비하는 초일류 육군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생도 교육 및 군사 분야에 적용 연구하여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충성대 학술세미나에서 학교장(소장 방성대, 가운데)과 발표, 토론, 사회자들의 기념사진

##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기탁

육군 K-military 경연대회 상금, 축제 먹거리 장터 수익금 등 직접 모아



감사와 나눔 생활화로 최근 '육군 감사 나눔 운동 우수부대'로 선정된 학교 생도들이 지역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59기 유동열 생도 등 3명은 10월 26일 생도를 대표하여 영천시청을 방문하여 재단법인 영천시 장학회(이사장 최기문 영천시시장)에 성금 210만 원을 기탁하였다. 이들은 10월 계룡에서 열린 2022 세계 군(軍) 문화 엑스포 기간 중 진행된 'K-military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상 상금 전액과 학교 축제인 '충성제'에서 먹거리 장터 수익금을 모아 전달하였다.

특히, 이번 기탁금은 경연대회 상금과 학교축제 수익금 등 생도들이 직접 모은 금액을 기탁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탁 행사에 참여한 59기 유동열 생도는 "비록 큰 금액은 아니

지만, 생도들 모두가 땀 흘려 이룬 성과들이 담겨 있기에 더욱 뜻깊고 기쁘다"라며,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전했다.

육군 K-military 경연대회 상금을 기탁한 59기 윤연지 생도는 "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경연대회에 함께한 생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에 도움이 되어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천시 장학회는 2002년에 영천시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기탁된 기부금은 영천시 장학회 이사장인 최기문 영천시시장에게 전달되어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소령 이상민

### 한국화생방방어학회 추계 컨퍼런스 우수상 수상

59기 김대영 생도, 하수처리 성능분석 모델링 연구 포스터 부문 수상  
사관학교 최초 '미래 軍 환경리더 양성 아카데미' 추진, 교육 과정의 성과



▲ 연구내용 발표 후 컨퍼런스에 참가한 생도 교수들의 기념사진

학교는 지난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사)한국화생방방어학회가 주관하는 '2022 한국화생방방어학회 추계 컨퍼런스'에 참가해 김대영 생도(59기, 화학환경과학과)가 포스터 발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환경안보가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군의 환경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리더 양성을 위해 사관학교 최초로 '미래 軍 환경리더 양성 아카데미(이하 환경리더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의 일환으로 컨퍼런스에 참가해 소정의 성과를 내어 그 의미가 크다.

추계 컨퍼런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화생방 테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분야 전문 연구자와 국방과학연구소,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군환경연구센터, 육군사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약 바이오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00여 편의 논문 발표와 핵심주제에 대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컨퍼런스의 포스터 발표 부문에 참여한 김 생도는 'PARAFAC 모델링을 활용한 정삼투-저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2차 처리 하수 내 유기물 제거특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대영 생도는 "환경리더 아카데미 생도들과 함께 학회에 참가하여 최신 환경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견문을 넓히고, 생도 주도 연구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환경연구센터장 허지용 중령은 "이번 추계 컨퍼런스를 통해 전공학과 생도들이 대외 학술세미나에서 직접 발표하고 참여함으로써 생도 주도적인 창의연구를 활성화하였고, 미래 그린(Green) 리더로서 소양을 갖추는데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소령 이상민

###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레이싱 · 팝드론 배틀 등  
4개 종목, 300여 명 참가자의 개인 · 팀 경연

지난 10월 8일과 9일, '2022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가 계룡대 육군 드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군 장병들이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기반이 될 드론과 로봇에 친숙해지고,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 활용 붐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74주년 국군의 날 기념 'K-military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2022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는 '드론 레이싱'을 포함해 '드론 축구', '팝드론 배틀(Popdrone-Battle)', '국방로봇 경진대회' 등 4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300여 명의 참가자가 개인과 팀을 이뤄 드론과 로봇 운용 기술을 겨뤘다.

특히, 올해 드론 축구 종목에는 미래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주역이 될 생도들이 처음으로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58기 황준태 등 6명(58기 문진형, 59기 박승준, 함재규, 김윤제, 나다훈)으로 구성된 생도 팀은 드론 축구라는

생소한 종목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드론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실력을 연마하는 기회를 가진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그 결과, 생도 팀 중 장려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 드론 축구 : 양 팀이 각각 5대의 드론볼을 운용하며, 공격수 드론볼(1대)이 상대 팀 골대를 통과하면 득점이 이루어지는 경기 방식으로 3분간의 경기에서 많은 점수를 얻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

이번 대회에 참가한 58기 황준태 생도는 "비쁜 일과 속에서도 각자의 개인 정비 시간을 연습에 할애하고, 포항대학교 드론 축구팀의 조언을 받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대회 참가를 지원해주신 학교와 간부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2022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 '드론 축구' 장려상 수상 기념사진

###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영천교육지원청(8. 26)



더 이자미 21(9. 16)



미르치과 · 메가젠임플란트(9. 22)



울릉군청(10. 12)

주무관 길진규

### 9, 10월 학교 간부 전 · 출입자 명단

#### 전입 육군3사관학교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학교본부 이상민
- 학교본부 서민석
- 학교본부 김경민
- 학교본부 김정훈
- 행정부 황주환
- 행정부 최정우
- 행정부 남찬민
- 행정부 박희근
- 생도대 이지훈
- 생도대 최명호
- 생도대 조호연
- 생도대 인운기
- 생도대 김민섭
- 생도대 편성도
- 생도대 조성태
- 생도대 오영진
- 생도대 박준규
- 생도대 최재원
- 교수부 장지희
- 교수부 조희재
- 근무지원단 전중훈

#### 전출 육군3사관학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 학교본부 최인혁 → 6군단
- 학교본부 이상휘 → 2작전사
- 학교본부 박광선 → 7군단
- 행정부 이해선 → 6군단
- 행정부 손영민 → 수도군단
- 행정부 이안권 → 육대(소령지휘참모과정)
- 행정부 신창현 → 1군단
- 생도대 이선호 → 6군단
- 생도대 김근희 → 1군단
- 생도대 김대훈 → 특전사
- 생도대 최호수 → 3군단
- 생도대 최재균 → 3군단
- 생도대 경일규 → 7군단
- 생도대 김석화 → 교육사
- 생도대 차승우 → 육대(소령지휘참모과정)
- 생도대 송태권 → 수방사
- 생도대 김태효 → 육대(소령지휘참모과정)
- 교수부 오동한 → 정통교대위(후참모과정)
- 교수부 정영일 → 2작전사
- 근무지원단 주영우 → 2군단
- 학술정보원 이세민 → 2작전사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생도의 멋과 낭만

# 2022 충성제



“ 개교 54주년을 맞아 열정과 낭만,  
그리고 화합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場 ”

학교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학교 전통을 계승하고 생도들이 연마한 재능과 끼를 선보이는 행사인 충성제를 실시했다.

개교 54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한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어 3년 만의 개방행사로 진행되었고,

1일 차 사관생도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국군교향악단 및 군악 연주회, 문화예술공연, 전시회/부스체험, 충성대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생도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주무관 길진규



#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 조국 수호 · 강군 건설 결의 다져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도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지난 10월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장병들이 외친 국군의 사명이다. 국군은 1948년 창설됐으며, 정부는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북진에 나선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기도 하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6년 만에 충남 계룡대 대연장에서 열렸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대표하는 핵심 전력을 선보인 이번 행사는 각 군 기수단과 사관생도, 통합미래세대, 통합특수부대 등이 참가하여 국민의례, 훈·포장 수여, 기념사 연합·합동 고공강하, 공중전력시열,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특공무술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도 58기 생도들은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기자생도 본인도 실시간 행사 중계를 보며 자연스럽게 선배 생도들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랜스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사관생도들에게도 장교의 꿈을 가지는 데 있어, 국군의 날 기념행사나 영상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우리 군의 뛰어난 전투력을 보며 그 일원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매년 우리군은 국군의 날을 기념하며 새로운 마음을 다잡는다. 주변국의 정세 불안이 심해질수록 확고한 힘을 기르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사관생도로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진할 것이다 59기 기자생도 김대영



# 생도대 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소위라는 마음가짐

21개월간의 생도 생활을 통해 능숙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58기 생도들 옛것에 충성 기초훈련을 받기 위해 입교했던 것 같았는데 벌써 그토록 그리던 오만 촉광의 다이아 계급장을 달아 소위가 되는 임관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벌써 소위(진)이라는 말과 함께 몇몇 생도들이 생도대에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직 임관 전이지만 소위(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생도대의 왕이 되었다. 훈육관님들의 눈을 피해 조금씩 일탈을 즐기고 있었고, 은근슬쩍 행정예규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초심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소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생도 분계선

하계휴가가 끝나고 생도들은 3, 4학년 생도들이 분리되어 생활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장차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기들을 많이 만들고 친해지라는 의미를 담은 훈육관님들의 배려였다. 하지만 생도들은 마치 선, 후배 간 군사 분계선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일반학기 간 주요 직책을 맡아 임무수행 하던 선배 생도들이 없어진 3학년 생도들은 선배 생도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요 지휘군무자들이 되어 중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던 임무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한다. 선배 생도들과 같이 생활할 때는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이나, 개인적인 상담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장점은 존재한다. 더 많은 동기와 친해지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3학년 생도들의 풍부한 지휘군무생도 경험 등의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졸업과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대대로 강제 편입된 원소속 1대대 4학년 생도들은 본인 중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들 얘기한다. 약 1년 반 동안 함께 한 훈육관님들과 멀어지고, 본인 중대의 자부심을 잃어버린 생도들은 오히려 새로운 중대 인원들과 친해지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 촌철살인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아는가? 조그만 쇠붙이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시키거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는 약 500명 정도의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과연 동기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때로는 편안한 가족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쉬운 존재로 느껴지기도 한다. 시험 기간에는 동기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공부하고, 같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버티며 운동도 한다. 이처럼 매우 가깝기도 한 동기지만, 가끔은 적이 되기도 한다. 동기에게 직·간접적인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정에 육군 장교가 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이곳 충성대에 같은 날 첫발을 내딛은 우리. '적은 만들지 말자'라는 말을 생각해 보며 지금이라도 앙금이 남아있는 동기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난 후 임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 밥은 먹고 합시다!

충성대는 더욱 멋진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항상 다니던 길이 통제되는 등 불편함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중 군대스러게 축구를 좋아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바로 2대대 풋살장이 없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주말 일과시간 이후 개인 정비 시간에 풋살장 자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현재 자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풋살장에는 밥도 안 먹고 풋살장 자리를 잡아놓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오후 체력단련이 끝나고 개인 정비시간이 되면 풋살장에 먼저 도착한 일명 '특공조' 생도들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생도들이 올 때까지 쓸쓸하게 풋살장 자리를 지키며 기다린다. 그렇게 생도들이 도착하면 EP, 분대스리가 등을 방불케하는 경기가 시작된다. 풋살 경기가 끝나고 생활관에 도착하고 나서야 허기짐을 느끼는 특공조 생도들. 우리 풋살도 좋지만 밥은 꼭 먹고 합시다!

### 독점

학교에는 생도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존재한다. 특히, OO치킨 군장점, 은행, 카페 등이 있는 생도회관은 생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중 OO치킨은 외부음식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다양한 메뉴들로 생도들의 허기짐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생도들이 정말 OO치킨을 원해서 가는 것일까? 아니면 각종 출타 제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일까? 최근 들어 생도들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다양하지 못한 메뉴,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인한 불만이 들려온다. 이러한 불만에도 건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

정말 생도들이 원하는 메뉴가 무엇인지, 생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무엇인지 모른 채로 존재하는 OO치킨이 대로 가도 괜찮을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생도 토크콘서트 '함께 꾸는 꿈'

## 58기·59기 사관생도 공금증해소와 군 생활 노하우 전수

지난 9월 30일, 학교장님을 비롯한 주요직위자와 함께 생도 토크콘서트 '함께 꾸는 꿈'을 같이 진행했다. 토크콘서트는 사관생도의 공금증해소 및 군 생활 노하우 전수, 역량 강화,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생도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 종교의 사생관'과 '독서의 일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 종교의 사생관

종교의 사생관이라는 기획 코너는 가수 유희열이 MC였던 '다수의 수다'라는 4개 종파의 성직자들이 모여서 대담을 진행하고 공금했던 점들을 해소해주는 프로그램에 영감을 얻어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군종 장교를 비롯한 종교 대표자들이 생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군의 리더로서 종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호응을 받은 발표자들의 말을 소개하고자 한다.

**강찬영 소령(목사) :** 현재 우리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늘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것만으로도 벽만 시간이겠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임관하여 군의 리더로 성장해 가면서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인격과 영성(Spirit)을 종교를 통해 준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김철훈 교무 :** 생도들은 현재 인생 전반에 걸쳐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생도들에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생도들에게 삶의 방향으로,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야전에 나가서 부대 지휘관으로서 성장하겠지만, 종교성을 가진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힘이 있으며 또 하나의 지휘역량을 갖추게 해주는 힘이 존재합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지만, 생도들이 야전에 나가서 종교를 통해 병사들을 존중하는 지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삶에 큰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영감을 받은 생도가 많았다. 특히, 장차 군의 리더로 성장할 우리가 공통으로 종교관을 가짐으로써 지휘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값진 시간을 만들어주신 종교 대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독서와 일기

생도들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독서와 일기가 나왔다. 첫 번째로 생도대장님께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라는 책을 강력히 추천하셨다. 이 책은 살면서 힘든 순간이 와도 선택을 할 때 후회 없이 죽기 살기로 나아가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절망보다는 희망을 믿고 나아가자고 피력한다. 생도들이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는 강인한 군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뜻, 삶을 긍정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생도대장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로 일기는 생도여단장님이 강조한 역량으로, 생도들이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하셨다. 일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억에 남는 일들을 적는 것이며, 일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발전하는 사관생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삶이 무료하다고 느껴져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닌,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바램이 생도들에게 잘 전달되었다.

이번 토크콘서트가 마무리되고 생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이 있다. 앞으로도 토크콘서트처럼



대화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화의 시간이 생도들에게 공금증해소를 비롯한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도들을 위해 애임없는 조언을 해주신 학교장님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59기 기자생도 오 찬 울

COMMANDER  
**제9회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  
 COMmand(지휘하라), MANeuver(기동하라), DEFeat(승리하라)

팀 알타이카  
(우승)



지난 10월 21~22일, 생도들의 전장 리더십과 팀워크, 전투체력, 전투기술, 전술적상황판단·조치 능력을배양하기 위한 '제9회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에 참가한 생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경쟁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팀 알타이카(우승)

유호진, 박민우, 신지민, 권희재, 윤준용, 이여진, 최솔희, 김민혁, 이지명, 김성은(이하 58기), 이채민(59기)

팀 KAA(준우승)

최혁, 손혁준, 방승욱, 김지수, 김성현, 김하림, 이랑, 권용찬, 태현수, 남철우, 김형석(이하 58기)

팀 Hybrid(사격부문 2위)

박지훈, 김의룡, 김경배, 박동현, 손동명, 최일도(이하 58기), 박한별, 최윤경, 백승운, 유승운, 김효민(이하 59기)

2015년 '화랑전투기술 경연대회' 로 문을 연 대회는 '지휘하라(COMmand)', '기동하라(MANeuver)', '승리하라(DEFeat)' 라는 의미를 담아 지난해부터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 로 개칭·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육사와 3사 생도 198명이 18개의 팀을 구성하여 공격·방어 작전시 발생할 수 있는 전술적인 상황과 연계한 1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팀 알타이카는 1위로 선정됐으며 팀 KAA는 2위를 차지, 팀 Hybrid는 사격부문에서 2위에 선정되었다.

58기 국장생도 김수현

팀 KAY  
(준우승)



참가생도 단체기념 사진



칼럼 I

11월의 개양귀비



중령 황수현  
인문학처 군사사학교수, 충성대연구소장

**지난 9월** 19일, 전 세계인의 시선은 70년간 영연방의 수장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집중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역대 국왕과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사원으로 국가와 왕실의 중요 공식행사가 열리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장소는 사원 내부에 있는 무명용사의 무덤이다. 무명용사의 무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에서 전사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영국군 유해를 종전

2주년인 1920년 11월 11일에 현 위치에 안장하면서 조성되었다. 현재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부에 조성된 무명용사의 무덤 석판은 개양귀비로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무명용사의 무덤은 다른 무덤과는 달리 영국 국왕조차 함부로 밟을 수 없는 신성한 공간으로 추모되고 있다.

개양귀비가 전사자의 영령을 위로하는 상징이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캐나다군의 맥크래(John McCrae) 중령이 1915년에 발표한 '플랑드르 들판에서(In Flanders Fields)'라는 추모시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저자가 서부전선의 대표적 격전지인 플랑드르 들판에 만개한 개양귀비를 보며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많은 젊은이를 추모하는 상징적인 시였다. 당시 플랑드르 들판에 세워진 수많은 하얀 십자가 사이로 피어난 붉은 개양귀비 군락은 전사자들의 영령을 달래는 상징적인 꽃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오늘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기념일인 11월 11일을 'Remembrance Day'라 칭하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대규모 국가행사를 거행한다. 이때 모든 국민은 가슴에 개양귀비를 달고 추모에 동참하며, 이날만큼은 영연방의 국가원수인 여왕과 영국 왕실의 핵심 인사, 정부 수반 등이 참석하여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기념일인 11월 11일은 단순히 약 840만 명에 달하는 전사자만을 추모하는 날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제1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희생된 영혼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연방 이외의 대부분 참전국도 전쟁이 종전된 11월 11일, 오전 11

시에 맞추어 다양한 추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도 2007년부터 매년 11월 11일을 6·25 전쟁에서 전사한 UN군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국제추모의 날'로 선정해 'Tum Toward Busan'이라는 명칭으로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날이 오면 오전 11시에 UN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해 고개를 돌려 1분간 묵념하는 의식도 진행하고 있다. 전쟁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올해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104년이 되는 해이다. 비록 플랑드르 들판에서의 총성은 멈추었지만,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에서도 북한의 위협은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연대한 삼국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가 연대한 삼국동맹이 중재자 없는 팽팽한 세력 간의 대립을 지속하던 가운데,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우발적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2022년의 동북아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연대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 연대 간의 대립이 중재자 없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가 약 100년 전 유럽에서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인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오늘날 동북아에서도 그 비극은 재현될 수 있다. 그 고통은 언제나 그렇듯이 힘없는 약자의 몫이 될 것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미국의 후버(Herbert Clark Hoover) 대통령이 경고한 것처럼, 전쟁 결정과 상관없는 젊은이들이 희생자의 대부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칼럼 II

디지털 공간 속  
수용자의 4가지 유형



대위 박영진  
인문학처 군사사학교수

**요즘 우리** 주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들의 공통된 테크놀로지적 특성이 '디지털화'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뉴미디어라 하는데, 뉴미디어는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기기 등을 중심으로 쌍방향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매체를 말한다. 이는 디지털화, 상호작용, 하이퍼텍스트, 분산, 가상성이란 특성을 갖는다. 부연하자면, 디지털 정보가 책과 같은 형태가 아닌 비선형적 텍스트를 통해 쌍방향으로 교환이 가능해지고, 정보를 생

산·소비하는 주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디지털 공간에서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뉴미디어의 특성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사실 이와 같은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늘 들려있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오늘날 인간의 '제2의 두뇌'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1996)은 뉴미디어를 통해 변화된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 나아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문화수용자의 정체감 문제를 4가지 유형을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네 가지는 산보객(stroller), 관광객(tourist), 방랑객(vagabond), 그리고 운동선수(player)다.

**첫째로 산보객**은 특정한 목표 없이 디지털 공간을 말 그대로 산보하듯 드나드는 존재다. 딱히 할 일은 없다. 뚜렷한 목표도 없다. 그러나 이곳저곳 둘러보고 싶은 곳이 많아 끌리면 잠시 들렀다가 쉬기도 하고 곧장 다른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두 번째는 관광객**이다. 관광객은 모종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여행을 설계한다. 다분히 의도적이며 이성적이다. '관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재정여건, 교통수단, 관광지 등 끊임없이 검토하고 확인한다. 그러나 관광의 특성상 낮은 관광지에서 자신이 계획한 바 외에 다른 것은 얻기 힘들다. 자신의 고유한 취향과 관심을 쫓아 특정한 목표만을 획득한 후 돌아가는 것이 관광객의 특징이다.

**셋째로 방랑객**이다. 방랑객은 어떠한 통제를 받기도 거부한다. 이들은 법과 규율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어느 곳이건 마음 내킬 때 찾아가 문을 두드

린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하나의 일탈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정보의 바다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방랑객의 특징이다.

**끝으로 운동선수**다. 뉴미디어가 제시하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에 출전한 이들은 경기장에 나선 운동선수와 유사하다.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즐기며 가상현실에서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기도 한다. 마치 게임을 하듯 하나의 경기에 출전하면 최선을 다해 싸우지만, 승패에 초연한 태도를 갖는다. 같은 운동선수끼리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일종의 목표를 위해 팀으로서 노력하기도 한다. 운동선수에게 있어 디지털 공간은 자신의 역량을 실험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이자 경기장, 그리고 놀이터이다.

드넓은 충성대를 확보하는 사관생도들은 위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인가? 뚜렷한 목표 없이 확보하는 산보객인가? 소기의 성과만을 달성하고 만족하는 관광객인가? 그도 아니면 규율이라는 틀 안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방랑객인가? 필자는 생도 한명 한명이 충성대라는 운동장(playground)에서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한 명의 운동선수(player)가 되길 권한다.

훌륭한 감독, 우수한 코치들은 곳곳에 대기하고 있다. 운동선수의 역량을 키워줄 좋은 시설과 여건도 구비되어 있다. 신체·정신적 한계를 끌어낼 좋은 프로그램들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것을 디지털 공간에서 하나의 정보를 수집하듯, 하나하나 찾아가 스스로 두드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생도 한 사람의 온전한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충성대를 넘어 야전까지 우리의 사관생도들이 본문의 운동선수와 같이 생도 생활을 즐기길 고대한다.

저명인사칼럼 I

## 가나안의 개척정신으로 승리하자



이 현희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WOCM) 총재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분야, 환경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고 찾아오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가나안농군학교는 대안으로

‘복민운동’의 개척정신을 외치고 있다. ‘복민’은 복을 받은 백성, 곧 복받을 일을 해서 복받고 잘살자는 운동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망할 짓을 해서 망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척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척은 못 쓰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척정신으로 내가 먼저 복민이 되고, 복민으로 살고, 가르쳐 복민이 되게 하는 데까지 삶으로 해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가나안의 이념인 근로, 봉사, 희생의 개척정신이다.

복민이 되는 길은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행복도, 땀 흘려 일하는 근로, 곧 일에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비로소 복민이 된다는 것이다. 복민으로 사는 길은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봉사는 남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정신을 말한다. 그렇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봉사정신으로 일을 하면 보상이 따른다. 무형의 힘, 곧 보이지 않은 보상의 힘은 너무도 커서 인정을 받고 결국에는 주인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다.

복민을 가르치는 길은 절대적으로 희생이 따른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씀이다. 그렇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

매를 맺는 진리의 선포이자 예언이다. 우리가 목적인 바를 이루고 성취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우리는 목적인 바가 있기에 꿈을 꾸다. 그 꿈을 이루려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자신의 꿈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면 책임감이 살아나고 이웃은 나를 응원하고 돕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도전해야 한다. 도전은 목표지점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도전에는 끈기와 근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될 때까지 해야 한다.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고 다짐하며 힘들어도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민 운동이 우리나라가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백성들의 정신을 일깨우며 생활과 정신의 빈곤을 깨운 것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가나안의 개척 교육을 통해 삶으로 보여주었기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기적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지금의 세계가나안운동본부는 개발도상국 오지의 나라에 들어가 이 복민 운동의 개척을 외치며 그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자립시키는 것이 가나안의 사명이다. 개척정신으로 살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개척자가 된다. 개척자는 현재를 충성스럽게 살며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간다. 그래서 개척자는 꿈을 이루고 자신을 넘어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게 된다. 더 나아가 개척자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 가르치는 자가 복을 받고 배우는 자들이 잘살게 되고, 많은 자에게 퍼져 나가 결국 잘사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 개척자로 승리하자.

저명인사칼럼 II

## 용사들과 소통을 '잘' 하는 방법



이상민

(주) 더 이지아미 21 대표이사, 3사 36기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여러분들이 임관 후 임무수행하게 될 소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작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3월이 되면 4학년 생도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충성대를 떠나대한민국 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딛음과 동시에 군 생활의 첫 관문인 지휘자(소대장)로서의 임무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휘자(소대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지휘통솔! 100점짜리 지휘자!' 과연 말처럼

쉬울까요? 필자 역시 그랬습니다. 1999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던 때가 불과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군문을 떠나 전역한 지 벌써 6년, 정말 시간은 빠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필자의 15년간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면 약 2년간 경험했던 소대장 시절이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세대' 장교, '신세대' 병사라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MZ세대'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MZ세대' 장교이고, 앞으로 만나게 될 소대원들 역시 예전보다 훨씬 더 자기주장과 표현이 강하고 자유로운 'MZ세대' 용사입니다. 이렇듯 같은 세대가 함께 군 생활을 시작하는데 누구는 소대장으로, 누구는 용사로 출발합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지휘자와 용사의 관계'에서 과연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을까요?

### 첫째. 솔직하게!

최근 용사들은 스마트폰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소대장의 언행(言行은 곧 용사들에게는 규정과 규칙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복될 경우 소대장과의 소통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게 되고 지휘의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사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 관련 근거(군인사법,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등을 바탕으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답변하거나 조치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게 될 경우, 상급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 되는 상황을 정확히 안내하여 '우리 소대장에게 보고하면 지휘절차에 의해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 둘째. 신속하게!

용사들에게는 일반적인 과업, 교육, 훈련 등의 안내와

공지도 중요하겠지만 용사들의 개인별 고민과 고충에 대한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대장에게 자신의 고민과 고충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 용사는 수십 번의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내민 도움의 손길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끝은 타임을 놓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소대장으로서 금기시해야 할 언어로는 '기다려라!', '별것도 아닌데', '그건 안 돼' 등으로 이러한 언어들의 사용이 반복되고 누적될 경우, 소대장과 용사의 사이는 이미 '너는너', '나는나'가 되어버리고 결국 전우애는 사라져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 셋째. 결정은 빠르게!

소대장은 훈련 및 전투임무 수행의 최첨단에 있는 실기동 제대의 지휘자입니다. 소대장의 지휘에 움직이는 용사들은 언제나 소대장의 명확한 지시와 신속한 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대장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용사들 사이에서는 우리 소대장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라는 소문이 나게 될 수 있고, 그 소문은 스마트폰을 타고 순식간에 전파되어 한순간에 '주춤 소대장'이 되어버리고 어느새 지휘자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후배 사관생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도 생활 동안 학습하고 습득한 많은 전술, 전기와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도 매우 중요하지만, 졸업 및 임관을 앞둔 시점부터는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영 생활 규정, 사고예방 및 처리 규정 등을 꼭 필독한 후 멋진 지휘자로 출발하길 소망합니다. 필자는 언제나 우리 후배 사관생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군 생활을 위해 늘 응원하겠습니다.

# 논단 신 냉전의 시대 : 패권지향적 국가전략추구와 파워 게임 <상>

## 중국과 대만의 분쟁 고조



소령 윤 희철  
사회학석 정치외교학과장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국제사회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며 평화의 시대로 돌입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불과 30여 년 만에 자유민주주의의 진영과 평화로운 공존을 꾀하던 중국, 러시아는 패권지향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지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신냉전 현상을 2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 (1) 중국-대만 분쟁의 고조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양안 관계는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2022년 8월 2일 낸시 펠로시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여 양안 간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의 중국 방문이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바이든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 이후인 4일부터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지역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으로 대만 주변 바다 6개 구역을 설정하여 실탄훈련을 하였고, 대만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중국 군용기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이례적인 상황을 조성하였다.



중국이 포격을 실시한 대만 주변 6개 구역 (출처: 경향신문)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2척의 군함을 대만해협으로 급파하여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의사를 타진했다. 미 의원들은 이후 세 차례 더 대만을 방문했다. 지난 10월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을 결정할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에서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2027년은 중국 건군 100주년이며 현재 3연임이 확실시되는 시주석의 4연임을 결정할 제21차 당 대회가 열리는 해로, 시주석의 4연임을 달성하기 위해 2027년 전에 대만에 대한 공세적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2) 중국-대만 관계 개괄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는 150만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대만으로 근거지를 옮긴다. 중화민국 망명 정부는 중국 전체의 대표 정부라고 주장하며 본토 탈환



1971년 10월 25일 유엔총회 중국 대표권 표결 직후의 대만(위)과 중국(아래) 대표단 (출처: 한국일보)

표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다는 표결이 이루어져 중화민국은 대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1978년 중국의 경제개방정책 채택과 1979년 미국과의 공식 수교는 대만을 더욱 고립시켰다. 결국, 대만은 약 15개 국가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고립된 입장에 처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대만에 대해 세 차례의 군사분쟁을 일으켰다. 첫 번째 분쟁은 1954년의 1차 대만해협 위기로 중국은 이장산 다오와 다천천다오를 점령해 저장성 앞의 대만 영토를 빼앗는다. 두 번째 분쟁은 1958년의 2차 대만해협 위기로, 중국은 진먼다

오를 겨냥했으나 미국이 개입하여 실패로 돌아간다. 이후 1990년 중반까지 중국은 진먼다오에 대해 포탄 발사 등 무력도발을 이어나간다. 세 번째 분쟁은 1995년에 발생한 3차 대만해협 위기로, 당시 대만 총통이던 리덩후이가 미국을 방문한 이후, 이에 대한 항의로 중국은 그해 7월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발사와 상륙 훈련을 감행하였다. 1996년에는 대만의 직선제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대만 해상을 봉쇄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2개 항모전단을 급파하였다.

### (3) 중국-대만의 충돌 가능성과 군사력 비교

2020년 5월 19일 중국의 싱크탱크 '중국양안아카데미'는 대만과 중국 간의 무력충돌 위험 지수를 -10에서 +10을 기준으로 7.21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 중국-대만 군사력 비교

	중국	대만
현역 총병력	2035만 명	163만명
준군사조직 예비군	51만명+51만명 (민병800만명 미포함)	12만명+165.7만명
육군+해병대	96.5만명+3.5만명	88만명+1만명
전차	5650량	565량
대포(100mm이상)	6,500문	1,490문
잠수함	58척	4척
항공모함	2척	0척
대형 수상전투함	78척	22척
대형 양륙함	10척	1척
중소형 양륙함정	359척	55척
폭격기	221기	0기
전투기	1,820기	478기
'20년국방비 지출(달러)	2,523억	122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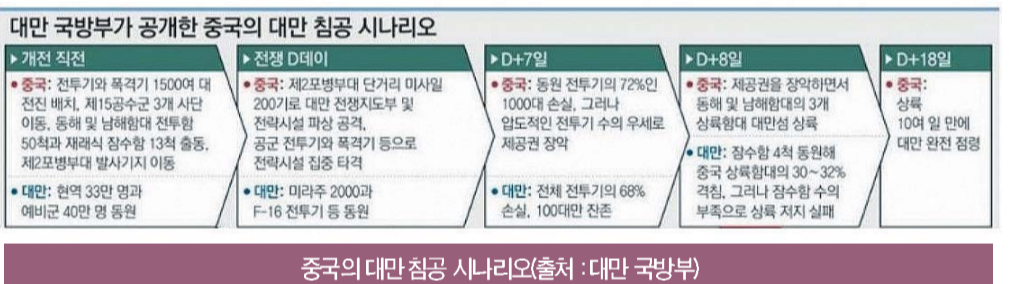
출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 밀리터리 밸런스(2021); 강준영(2022), p22

을 목표로 삼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중화민국(대만)은 중국 대표 자리에 있었고, 여러 서방 국가들도 중화민국을 중국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중화민국의 중국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1971년 10월 25일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대

1949년 장제스 국민당 총통이 대만으로 정부를 옮겼을 때 보다 높은 수치라고 주장한다. 군사력 측면에서는 중국은 대만을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 군비 증강도 강화하여 대만은 절대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15년간 연평균 10%가 넘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급격히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이에 대해 대만은 첨단무기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에게도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고습도치 전략'과 미국을 통한 안보강화전략으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다.

추귀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은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육전 일체(六戰一體)'의 연합과 지속 및 강공을 통해 3일 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공개하였는데 대만은 중국의 공격을 3일만 방어하면 미국이 개입하여 중국을 격퇴할 수 있으나, 초기 방어에 실패하면 14일 내 중국에 점령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양안 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이 주요 변수가 된다. 미국은 대중국 수교를 위해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1979년 4월 대만의 안전보장을 명문화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 Act)'을 제정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바탕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에 무기 판매 등 이중적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국과 대만의 분쟁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다. 폴 라케머 주한 미군사령관은 대만 유사시 한반도와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포럼에서 라케머 사령관은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일은 매우 빠르게 역내와 세계로 확산한다면서 대만 시나리오의 2·3차 영향이 무엇인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미국은 해외 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전략을 세웠고, 지난 부시 행정부는 유사시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시아 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뀔 수 있다.

주한미군이 대만사태로 인해 전장에 투입될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켜 안보상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며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충돌을 할 경우, 한국은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중 경제협력 사이에서 국가의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중국과 대만 관계에 예의 주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세심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핵, 공포의 균형의 붕괴조짐? <하>는 다음 편에서 계속

2022 트렌드 노트

# 모순의 시대, MZ세대의 MO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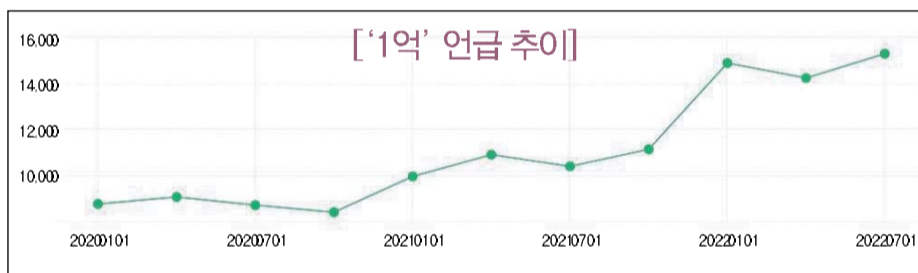


최재연

바이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한창 재테크 열풍이 불어 닥친 대한민국, 이제는 파란색으로 도배된 주식장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는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이 있다.

바로 '1억'이라는 키워드이다. 2020년 1분기 대비 2022년 3분기, '1억'의 언급량은 1.7배 증가하였다. 도대체 1억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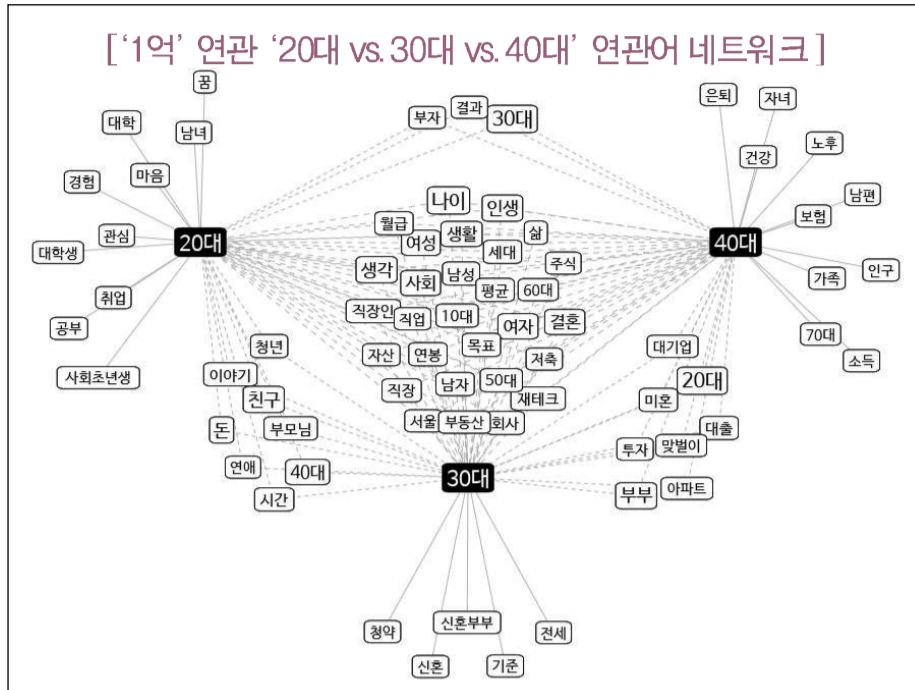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 2020.01.01.~2022.09.30.

'1억'이라고 하면 재테크를 위한 종잣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억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달랐다. 20대에게 1억은 대학생이자 사회초년생으로서 경험과 관심을 찾기 위한 금액을 의미한다. 30대에게는 전세, 청약 등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으로 여겨지며, 40대에게는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자금으로 언급된다.

물론 20대에게도 1억은 돈을 벌기 위한 시드머니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드의 측면이 두드러진다. '1억+20대'의 연관어로 사회초년생, 꿈 등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시기라는 인식이 유효하다. 즉, 20대에게 1억은 값거나 불려야 할 자산이 아니라, 인생 경험을 위해 투자하는 자금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만약 통장에 1억이 있다면 회사를 나와도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다는 마지막 안도감을 주는 요소이다. 이때 1억이라는 돈은 '용기'가 된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 없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나는 사실 올해 전만 하더라도 돈을 전혀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기계부도 20대 초반에 앱으로 써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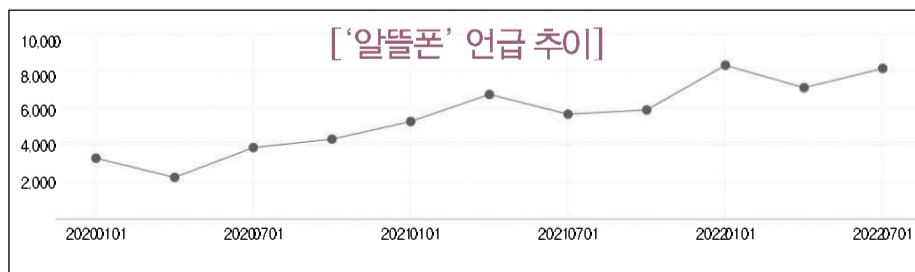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트위터+블로그+커뮤니티+인스타그램, 2020.01.01.~2022.09.30.

만의미가 없었다. 내가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이유는 생존과 저축, 미래 때문이다. 올해 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이대로는 미래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미래에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생각을 했다. 그 결과 답은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으자였다. 난 평생을 살면서 혼자 의지로 제대로 저축을 해본 적이 없는데 3달 전부터 소소하게 카카오펁 저금통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수입원을 이야기하고,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은 과감하게 줄이는 모습을 보인다. 포기할 수 없는 넷플릭스는 친구들과 N분의 1을 하고, 자주 쓰지 않는 혜택이 많은 통신사 포인트 대신, 쓴 만큼의 요금을 내는 알뜰 요금제로 갈아탄다. 돈을 모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포기할까라는 질문이 떠올라야 할 시점이다.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트위터+블로그, 2020.01.01.~2022.09.30.

한때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 성행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N잡러, 파이어족 같은 경제적 자립을 위

한 노력형 인간군상이 더욱 익숙해진 지 오래다. 이들은 대부분 모이면 제법 큰 지출이 되는 일상의 소소한 지출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알뜰폰의 인기가 이를 보여준다. 핸드폰 대리점과 대형 통신사를 통해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는, 할인율이 높은 공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손품과 발품을 팔며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소비자라는 인식이 생겼다. 화장품을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샘플도 요즘은 제로웨이스트와 같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가치에 반하는 전략이라며 샘플 필요없음을 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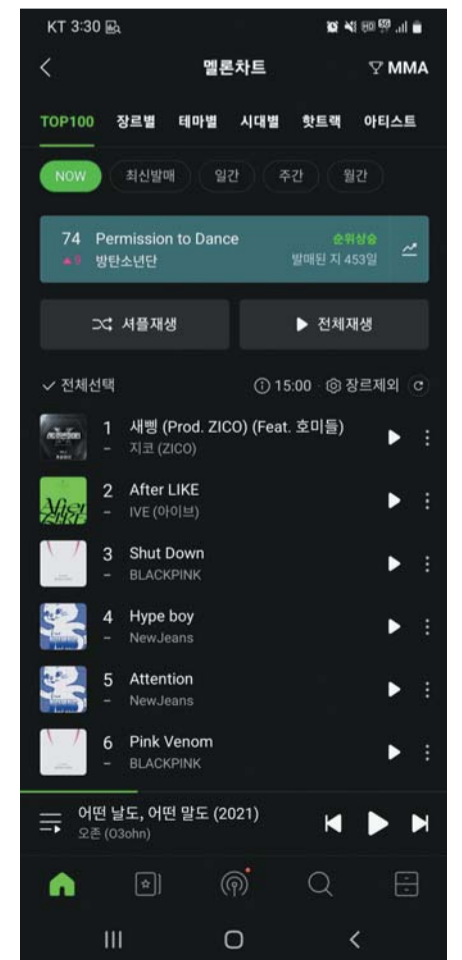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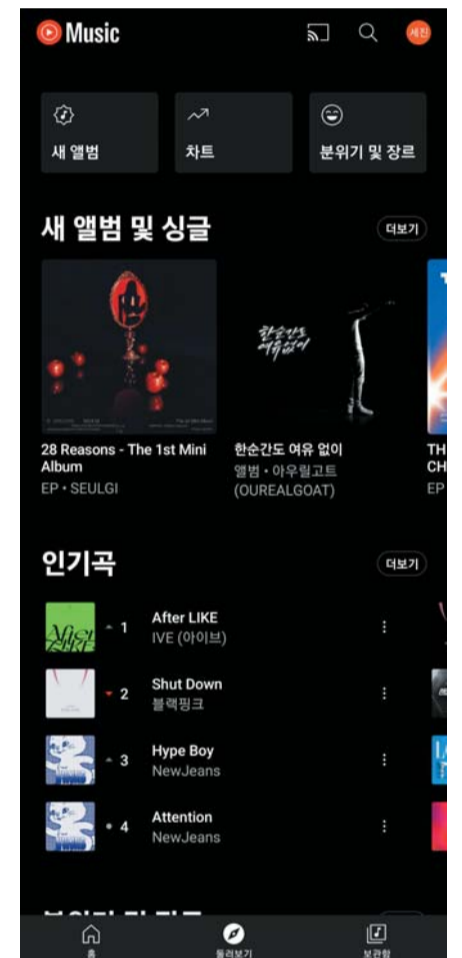
"드디어 핸드폰 요금을 알뜰폰으로 바꿨다. 유심 내일 올 거다. 핸드폰 요금이 확 줄었다. 한 달에 필수적으로 나갈 고정비가 15만 원으로 줄었군"

한마디로 과거보다 소비자들은 더욱 간간해지고 성숙해졌다. 오랫동안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1위를 차지했던 멜론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소위 '갈아타는' 소비자들을 보자. 관습에 따르는 소비자들보다 자신에게 가치가 덜 한 것은 과감하게 아끼는 소비자들인 것이다. 특히 1위를 지키고 있는 브랜드라면, 더욱 긴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필요 없는 것을 제공하면서 돈을 더 받고 있지는 않은가? 갈아타는 소

비가 아닌, 유지하는 소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와 가치를 제공해야 할까?

"나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멜론 쓰고 스트리밍하고 그랬는데 올해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탔음. 플레이리스트도 좋고 그냥 순위 상관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음"

20대에게 '아까운 돈'과 '아깝지 않은 돈'은 가격으로 나뉘지 않는다. 기존에 '고정비'라 칭했던 개념은 언제든지 변동비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콘텐츠 비용, 정기 구독비용은 새로운 고정비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멜론 뮤직(상)과 유튜브 뮤직(하)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戰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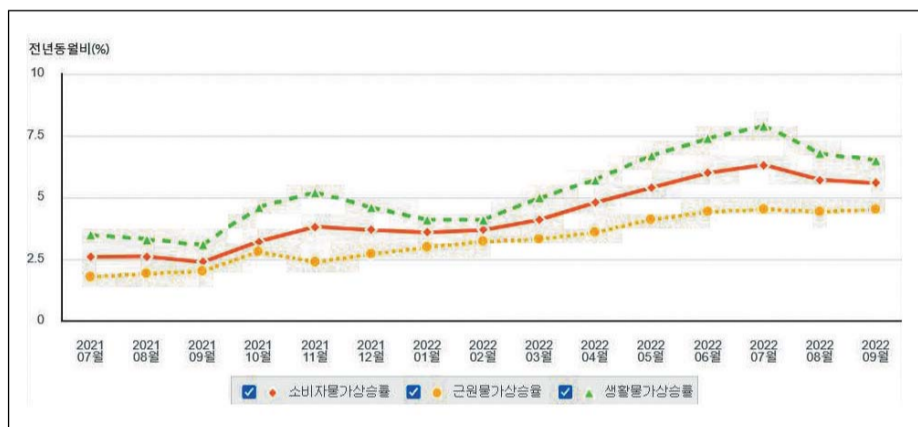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의 원인, 그리고 금리 인상의 효과

성경 희('주호선생', 리얼스탁애널리스트)



지난 6~7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률은 각각 6%와 6.3%였다. 이러한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1월 6.8%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상대적인 상승률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물가지수에서도,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년 100)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5.6%나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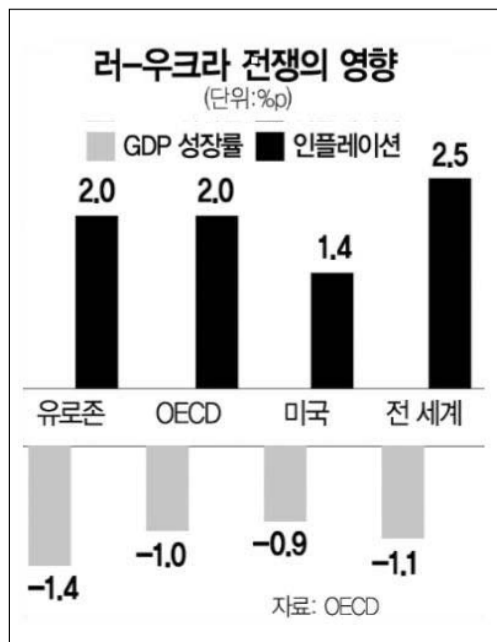
이처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2022년인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파월(J.Powell) 의장을 비롯하여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주요 국가의 금융 정책 책임자들은 저(低)인플레이션 시대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것은 지난 1980년 이후 금융긴축 및 세계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저하로 인하여,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하향 행보를 그리던 인플레이션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으며,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 각국은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현 세계 경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각국의 경제책임자들에게 비상상태를 선포한 이번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알아보아야 한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는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동반하여 나타난다. 시장이 호황일 때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며 임금이 상승한다. 이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 고임금으로 인한 구매력의 상승으로 수요가 올라가면서 물가의 상승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은 시장 안정화장치가 발동하여 물가가 다시 안정화된다. 그러나, 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정상적인 경제순환과정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흐름에 반항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시장에 통화공급이 과도하게 확대되었고, 유동성이 증가하였다.



Covid-19 확산으로 일자리나 투자의 감소를 발생시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 각 정부가 대규모 재정정책과 금융 완화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과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다. 1980년대 저물가 시대의 주요인은 에너지 절감 정책 및 생산 기술로 인한 증산 노력 등으로 인한 낮은 원자재 가격이였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각종 희귀금속 생산과 수출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원 가격의 영향력이 큰 나라이다. 특히, 주로 생산하는 원자재 중 하나인 니켈은 배터리 생산이나 가전,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하게 쓰이는 스테인리스의 생산에 활용된다. 이처럼 러시아가 자원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식량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전 세계 밀 수출의 10%, 옥수수 수출의 12%를 담당하는 곡창지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값싼 노동력의 소멸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 긴축을 펼치고 있다.

## 통화 긴축을 위한 금리 인상과 그 효과

인플레이션은 앞서 말했듯이 근본적으로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가치를 올리면 된다. 통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중에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데, 중앙은행이 정책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하여 경기를 안정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긴축통화정책이라고 한다. 이러한 긴축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금리 인상이다. 금리는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 당 이자를 원금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이자율'이라고도 하며, 이자는 돈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는 일정 비율의 금전을 뜻한다. 이 때문에 금리를 '돈의 가격'이라고도 한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기 흐름에 맞춰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경기가 위축될 때는 중앙은행이 경기 부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자율을 내려 시중의 통화량을 늘린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일 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자율을 올려 시중의 통화량을 줄인다. 금리 인상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면 대출 이자가 상승한다. 그러면 대출 수요가 줄어들어 은행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이 감소하며 은행의 수익이 감소한다. 결국,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기업의 사업축소와 투자 감소를 가져오며, 가계의 대출수요가 감소한다.



통화량이 정체되고 감소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인상)을 했다. 22년 1월 0.25%에서 22년 9월 3.2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2년 반 만에 한미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은 연말까지 4.5%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해외에 투자되어 있던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달러화의 수요가 늘어나 달러당 1440원까지 치솟는 고회환율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 한국도 물론 인플레이션과 고회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은 환율이나 인플레이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 무역수지,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104.3%인 만큼 금리를 올릴 때의 리스크가 크다. 가계에 직접적인 부채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책임자들은 금리인상수준을 정할 때, 빅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같은 단위적인 수치가 아니라 가계 부담 최소화, 환율방어, 인플레이션 해소 사이에서의 최적점을 찾기를 바란다.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위에서 언급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비롯된 미시적, 거시적 경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문(同門)의 소리

‘디어 마이 프렌즈’ 세대 차이와 그 극복에 관한 이야기



소위 이 경미(3사 57기)

제25사단 제72보병여단 10중대 3소대장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며 워라밸을 꿈꾸는 MZ세대와 사회적 통념과 규율을 중시하는 기성세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노희경 저자의 ‘디어 마이 프렌즈’를 통해 세대 차이와 그 극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늙은 짝대들 이야길 누가 돈 내고 읽어?” “완전 개막장!” 작가 ‘완’이 묘사하는 엄마와 그의 늙은 친구들은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운전을 시키고, 나이 먹고 몸싸움이나 하고, 아무데서나 언성을 높이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던 그들의 삶을 소설로 녹여내며, 그녀는 30대인 자신과 6, 70대인 그들의 상처와 고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을 관찰하면서 완은, 매사 거침없고 억척스러웠던 엄마 ‘난희’가 결혼 후 남편의 외도와 친구의 배신으로 억척스러워져야만 살아 낼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평생을 일 중독으로 정아 이모를 외롭게 했던 ‘석균 아저씨’가 부모님에 동생, 그리고 자식까지 건사하느라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심 없는 ‘짝대들’이던 그들의 삶에 깊숙이 다가서니 보



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필자는 ‘디어 마이 프렌즈’가 존경해야 마땅할 윗세대를 ‘짝대’라는 표현으로 마음대로 규정지어버린 이 시대 몇몇 젊은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작품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짝대’라는 말로 우리가 규정지어버린 그들은 사실 지금의 우리와 같이 워라밸을 꿈꾸던 당찬 젊은이들이었고, 지금의 당찬 우리를 만들어준 고마운 세대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의 부재가 세대 차이를 초래하였다면, 디어 마이 프렌즈의 작가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에 관한 관심과 소통으로 편견을 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제목처럼 청춘과 어른이 ‘친애하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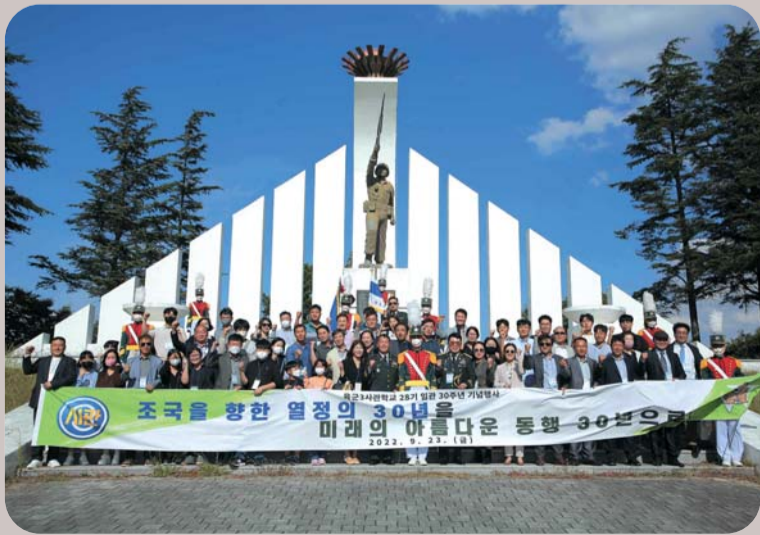
임관 40주년(19기)·30주년(28기) 기념행사

지난 9월 23일, 19기 졸업생 임관 40주년과 28기 임관 30주년을 맞아 졸업한 동문과 가족들을 초청하는 통합 임관기념 행사를 마련하였다. 학교에 방문한 동문과 가족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배 전우들을 기리는 중헌비 참배를 시작으로 역사관, 생도시설 관람, 중성의식을 참관하면서 생도 시절로 돌아가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학교 발전기금과 격려금을 각각 1천만 원씩 출연하여 전달하였다. 3사 총동문회



▲ 19기 임관 40주년 기념행사 단체 사진



▲ 28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 단체 사진

임관 30주년(29기)·20주년(37기)·10주년(47기) 기념행사

지난 10월 14일, 학교 창설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29기 졸업생들의 임관 30주년, 37기 임관 20주년, 47기 임관 10주년을 자축하는 임관 기념행사를 함께 병행했다.

학교에 방문한 동문과 가족들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헌신한 선배 장교들을 기리는 중헌비 참배를 시작으로 기수별 기념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였다.



▲ 29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 단체 사진



▲ 37기 임관 20주년 기념행사 단체 사진



▲ 47기 임관 10주년 기념 타임캡슐 개봉 행사

특히 47기 동문들은 10여 년 전 임관하는 순간의 마음가짐을 다지며 땅에 묻었던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행사를 통해 그 당시의 감정을 상기하고 추억을 동기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3사 총동문회

### 총동문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지난 8월 26일, 총동문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공군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약 200여 명 인원이 참석하여 창립기념의 의미를 더했다. 박주왕(19기)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3사총동문회



▲ 총동문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진

### 동문 지휘부대(2군단, 25기 장광선 장군) 위문

지난 9월 29일, 박주왕(19기)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3사 동문인 장광선(25기) 장군이 지휘하는 2군단을 방문하여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동문회장은 국토방위에 여념 없는 장광선 장군과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하였으며, 장광선 장군은 총동문회의 부대 위문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위국헌신 군인 본분의 자세로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3사총동문회



▲ 위문금 전달식 간 총동문회장과 장광선 장군의 기념사진



▲ 특수전학교 교수부장 조재희 대령(25기) 등 현역 동문의 생도 공수 훈련 현장 격려 위문  
\* 특별히 제작한 공수티셔츠 증정



▲ 총동문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제14회 3사 총동문회 축구대회에서 개회식을 주관하는 총동문회장(9. 17)



▲ 2022 제대(예정) 군인 및 보훈가족 취·창업 박람회간 테이프커팅식(10. 13)



▲ 보름회(15기) 임시총회개최(10. 13)



제10회 육군3사관학교 26기 한마음체육대회 단체 기념촬영(10. 15)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2년도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구분	사업항목	사업비(원)	비고
생도 장학금 (1억 4천만원)	해외전학 장학금	110,000,000	4학년생도(587) 해외전문대학
	우수/유학생 장학금	30,000,000	성적우수/목표달성/외국유학생도지원
교육증진 (6,963만원)	학점 교류대학출강	7,130,000	서울대, 경북대, 포스텍 출강생도 지원
	외부교수/강사초청	19,000,000	외부저명강사(학위, 군사학, 기타) 구성
	교수학습증진	6,000,000	국외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생도 학술경연장려	6,000,000	학과별 참가, 안보토론회, 사이버 경연
	생도 교류활동지원	21,500,000	강철전사경연, 토크/주제토론회대회 경연
	군사훈련지원	10,000,000	587, 597 주요군사훈련 지원
입시홍보 학교홍보 (7,150만원)	미디어콘텐츠제작	6,500,000	영상제작 장비(고성능PC)
	고교(생)홍보활동	42,000,000	EBS 교재 광고/생도방문/교사초청 홍보
	입시공로자포상	2,500,000	교외, 생도/간부 유공자
	도시육외조명광고	10,000,000	대도시 멀티비전 학교광고
	예비합격생도교육	6,000,000	소집교육 숙박비/여비
	학교커렌타제작	4,500,000	편집/기획비 지원
목적사업계		281,130,000	학교적접지원 사업비

- ▶ 17기 신영식 500(500)
- ▶ 18기 구연덕 2(144), 금용백 6(612), 이기환 2(39), 진기상 30(1110)
- ▶ 19기 김익수 2(211), 이경희 2(187), 이종형 6(295), 이창호 6(618), 홍성식 2(209)
- ▶ 20기 박권순 4(176), 서정열 2(507)
- ▶ 21기 신철수 4(1,194)
- ▶ 22기 권순태 2(66), 김민수 10(140), 정경호 2(59), 조태환 4(167), 천병규 4(476)
- ▶ 23기 김태일 2(244), 신영찬 2(85), 오승욱 4(292), 최승환 2(21), 허강수 4(307)
- ▶ 24기 광종만 4(80), 권금락 4(312), 권오봉 2(228), 김도협 2(246), 김성래 4(60), 남용구 4(314), 모경원 2(241), 박세철 2(84), 방상대 2(125), 이문휘 2(106), 정정현 2(205)
- ▶ 25기 김남용 2(148), 문봉성 2(166), 이은전 5(78), 장광선 6(520), 장무수 2(63), 전희준 2(319), 조재희 2(137), 홍은표 2(213)
- ▶ 26기 고창준 10(342), 신태영 3(107), 양성안 1(17), 유근환 3(50), 이덕우 2(141), 이완주 6(160), 이태인 4(90), 임우영 2(258), 장용빈 2(137)
- ▶ 27기 김관수 6(121), 김덕중 2(82), 김성우 4(58), 김용범 4(46), 김지덕 2(36), 김호복 8(313), 석수열 2(59), 우성재 2(22), 원희문 10(315), 이희순 2(253), 정필균 2(58)
- ▶ 28기 권승영 1(32), 권양철 2(122), 김진길 2(94), 김창현 3(178), 박용섭 4(201), 서청수 2(186), 유정일 2(50), 윤석찬 2(155)
- ▶ 29기 김강식 2(259), 김광석 4(30), 김태영 4(58), 박성훈 2(167), 박태용 2(146), 이상일 2(202), 이규구 2(129), 임국기 20(150), 임성호 2(178), 최인철 2(140), 현태식 2(164)
- ▶ 30기 김중권 2(98), 김홍빈 5(15), 김효성 2(58), 남진오 2(69), 이병길 2(33), 이진 2(163), 임상달 2(133), 주경호 3(128), 홍성범 2(51), 함민호 2(114)
- ▶ 31기 권동호 4(88), 김민식 4(126), 김영태 2(195), 김태희 2(23), 김희업 2(240), 염환수 2(150), 이재춘 2(224), 이훈복 2(62), 최대집 2(60), 전경민 2(47)
- ▶ 32기 권관덕 4(342), 김화용 2(127), 사인우 2(149), 송진수 5(100), 안태환 4(22)
- ▶ 33기 권해욱 4(48), 김상선 2(174), 김성근 4(172), 김현규 4(420), 남석진 2(151), 노일 6(206), 인경일 2(248), 안준영 6(161), 이정표 6(119), 조재봉 2(124), 홍종원 2(45)
- ▶ 34기 강훈211, 김기수 2(194), 김민오 12(12), 김승선259, 김홍식6477, 이무이 2(418), 임창훈 2(94), 정동민 2(219), 정찬근 2(120), 정충환 2(70), 조수창 2(195), 홍영기 2(39)
- ▶ 35기 김경철 2(23), 김수열 2(83), 박병준 6(350), 박상현 2(42), 박시근 2(197), 송명성 4(88), 이문희 2(163), 이호선 6(52), 임창규 2(121), 장춘삼 2(158), 전성광 2(52), 정병삼 3(164), 정영석 2(119), 정호준 4(122), 하중수 2(39), 한중훈 4(395), 황재혁 10(21)
- ▶ 36기 김도희 4(82), 김동혁 2(103), 김현 2(142), 안경무 6(310), 양현승 2(219), 이광희 2(164), 이규호 2(129), 임종수 2(84), 장세호 2(215), 정우철 2(150), 조동권 2(231), 진연수 2(175), 강성봉 2(181), 김양훈 6(279), 김충기 4(175), 김홍년 2(246), 노진철 2(160), 문장권 2(34), 송석봉 4(179), 송용섭 4(313), 엄태환 2(4), 옥원호 2(146), 이관모 2(152), 이웅구 4(88), 이원형 4(303), 이희석 2(131), 임민철 2(167), 전성진 2(141), 정우진 2(84), 정태욱 4(142), 정희철 2(140), 최정호 2(52), 최하용 6(99), 함성규 2(117)
- ▶ 37기 김대현 2(37), 모을하 7(245), 문정민 2(130), 문현성 2(243), 서성걸 2(87), 이경식 2(191), 이정용 2(254), 위재익 4(101), 정한욱 2(222), 함기훈 2(98)
- ▶ 39기 권웅 2(57), 김의진 2(139), 김인경 2(97), 김지훈 4(115), 박철근 2(133), 송진근 2(132), 송창현 4(139), 심용운 2(102), 양운차 2(80), 이태화 2(225), 이용렬 2(121), 이준석 2(89), 장동준 2(87), 정대겸 2(40), 최현철 2(286)
- ▶ 40기 구자운 4(199), 김백련 2(212), 김민우 6(286), 김우형 4(34), 김종욱 2(53), 김형수 2(189), 남태근 2(48), 박상규 2(66), 박진하 2(105), 송석준 2(150), 유형선 2(96), 이호연 10(758), 이훈석 2(72), 최창국 2(108), 하성남 5(17)
- ▶ 41기 권영철 2(79), 김석진 10(308), 박한지 2(199), 방현욱 2(89), 손영민 2(173), 손종득 2(107), 임성은 4(145), 전종상 10(267), 정기재 2(199), 최민규 4(137), 최인혁 1(82), 최지능 2(222)
- ▶ 42기 강구한 2(30), 강재석 2(117), 강정희 2(166), 공광석 2(72), 김동우 2(140), 김동진 2(109), 김용민 2(76), 박용준 6(70), 박효찬 2(166), 손병현 2(184), 윤희철 2(160), 이광호 2(83), 이기욱 2(107), 이승은 2(166), 이용학 2(169), 정민기 2(159)
- ▶ 43기 강민식 4(266), 김용태 2(105), 김민중 2(250), 노창래 2(57), 박희영 2(73), 배동직 6(178), 백두산 4(262), 엄태섭 2(58), 이도훈 2(141), 이상민 2(157), 이용희 4(249), 이준맹 2(94), 이호선 2(96), 최진호 4(111), 허광석 2(105)
- ▶ 44기 김대는 2(117), 김승돈 4(22), 김인찬 2(58), 권용혁 4(56), 서동준 2(152), 엄태현 2(105), 오승우 6(79), 이민재 2(144), 이영민 2(153), 이희성 2(166), 최재균 2(84), 황재혁 2(43)
- ▶ 45기 권기호 2(147), 김동호 2(155), 김성수 4(133), 박영일 2(150), 서석관 4(164), 신우철 2(140), 이인권 2(95), 이진희 4(154), 정재현 2(151), 정진우 2(152), 채희용 2(130), 최충수 2(153), 황승세 2(151)
- ▶ 46기 강승웅 4(282), 김대영 2(53), 김명철 2(139), 김정렬 2(139), 김정호 2(256), 김진용 2(173), 박수만 2(45), 백인정 2(139), 송원상 4(228), 오기리 2(137), 이상운 2(139), 이신화 6(30), 이수원 2(142), 이진철 2(130), 정종택 6(419), 조광영 2(77), 조수만 2(101), 차승우 2(101), 표상열 2(139), 한영인 2(139), 홍한표 2(130), 황순창 2(139)
- ▶ 58기 황영호 6(57) ▶ 59기 이용훈 10(35)

2022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2. 8. 31 ~ '22. 10. 31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위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8억 7천만원(2022. 10. 31 기준)

- 단체  
19기 동기회 1,000, 28기 동기회 1,000, 29기 동기회 1,000, 37기 동기회 1,500, 47기 동기회 1,000, 57기 동기회 1,000, 15기 14중대 30, 59기 충성제음료판매팀 13
- 학교발전 동참 특별기부자('22. 8. 31~'22. 10. 31 기부현황)  
김의진(육사#46 10(70), 김호길(육사#48 2(67), 두석주(육사#51) 2(216), 황수현(육사#51) 2(16), 이강경(육사#54 2(10), 이우진(육사#54 2(78), 정성환(육사#54 2(4), 조상근(육사#56 2(151), 변용성(육사#58 2(117), 이규현(육사#58 2(111), 이주실(육사#58 2(96), 김대영(육사#59 2(184), 문은석(육사#59 2(90), 홍민찬(육사#61) 2(81), 홍희중(육사#61) 2(113), 송태권(육사#63 4(26), 홍인재(육사#63 2(46), 김강연(육사#67) 2(10), 김희준(육사#67) 2(10), 문준호(육사#67) 2(57), 조지웅(육사#6871) 2(18), 권상진(육사#69 2(44), 정윤혁(육사#78) 6(23), 한덕수(학군#26 2(123), 남기웅(학군#29 2(28), 구희근(학군#32 2(151), 임문택(학군#34 2(22), 송경재(학군#37) 2(140), 이정훈(학군#38 2(103), 정우람(학군#46 2(34), 홍현신(학군#48 2(36), 김현식(학군#49 2(21), 최병찬(학군#52 2(12), 권영훈(학군#56 2(4), 최재호(학사#29 2(14), 임도현(학사#54 2(19), 구주현(학사#55 2(42), 임채훈(학사#55 2(10), 박수영(학사#56 2(34), 성현애(학사#56 2(62), 심현형(학사#58 2(50), 강찬영(군중#61) 2(46), 김형태(간부#22 2(70), 윤경주(간부#26 2(30), 최윤정(간부#38 2(55), 송소연(간부#58 2(36), 이태희(준위) 2(45), 강필승(군무원) 2(4), 류재운(군무원) 2(208), 안영주(군무원) 2(58), 이수진(군무원) 2(26), 정시연(군무원) 2(37)
- 졸업생 가족('22. 8. 31~'22. 10. 31 기부현황)  
윤종택(#38 윤호영 부) 10(430), 김중국(#41 김성준 부) 10(390), 조경해(#45 황정태 모) 10(880), 백인숙(#47 ○○○ 모) 2(51), 성동모(#50 성열환 부) 4(234), 안순봉(#51 박상용 모) 20(1,100), 김현미(#52 오치원 모) 2(63), 이영미(#52 황성규 모) 6(340), 김정화(#52 조강현 모) 2(356), 박일심(#53 정필승 모) 4(151), 조정숙(#53 유영민 모) 4(152), 서완수(#55 서지찬 부) 4(110), 이찬범(#55 이윤성 부) 10(105), 정원섭(#55 정준영 부) 2(132), 송학빈(#56 송용준 부) 2(78), 정희숙(#56 배웅휘 모) 20(1,320), 조재현(#56 조성진 부) 60(200), 강혜영(#57 고원석 모) 2(26), 김경남(#57 김민우 모) 2(25), 김근택(#57 김광진 부) 4(54), 김수말(#57 김준모 모) 6(52), 박경석(#57 박찬환 부) 4(62), 양내석(#57 양철민 부) 20(270), 오유미(#57 김주현 모) 4(58), 이동희(#57 박찬환 모) 6(77), 정재현(#57 정유승 부) 6(54), 지마리아(#57 김대현 모) 10(255)
- 재학생 부모('22. 8. 31~'22. 10. 31 기부현황)  
구항분 2(20), 김한영 10(45), 양미선 4(32), 유영환 4(8), 이준성 10(10), 진경하 10(16), 최걸손 4(28), 한민군 4(50), 허강우 100(300), 김민선 6(24), 김아령 6(24), 박선화 5(15), 임승남 4(16), 장연복 2(9), 정신 2(8), 정영남 4(18), 최인 10(40), 최형준 2(4), 홍우경 50(100)
- 졸업생('22. 8. 31~'22. 10. 31 기부현황)  
▶ 17기 김용하 4(180), 남준호 10(1,439), 이기권 1(558), 임관택 2(94), 최익환 2(96)  
▶ 27기 윤경혁 5(570) ▶ 57기 김일순 10(425)  
▶ 97기 권영호 10(490), 김현기 6(1,221), 최병학 10(1,305)  
▶ 107기 권동환 10(205), 오정석 20(140), 최영돈 500(8,000)  
▶ 137기 문성묵 20(380)  
▶ 147기 김길영 2(112), 김종환 1(70), 안호 202(800), 이순진 209(20), 이웅진 20(360), 이종학 2(127)  
▶ 157기 김성연 2(539)  
▶ 167기 심재민 2(23), 신수철 12(77), 원홍규 6(354), 윤영식 20(340), 이영호 2(141), 이종우 2(174), 황병태 2(322)

- ▶ 25기 김남용 2(148), 문봉성 2(166), 이은전 5(78), 장광선 6(520), 장무수 2(63), 전희준 2(319), 조재희 2(137), 홍은표 2(213)
- ▶ 26기 고창준 10(342), 신태영 3(107), 양성안 1(17), 유근환 3(50), 이덕우 2(141), 이완주 6(160), 이태인 4(90), 임우영 2(258), 장용빈 2(137)
- ▶ 27기 김관수 6(121), 김덕중 2(82), 김성우 4(58), 김용범 4(46), 김지덕 2(36), 김호복 8(313), 석수열 2(59), 우성재 2(22), 원희문 10(315), 이희순 2(253), 정필균 2(58)
- ▶ 28기 권승영 1(32), 권양철 2(122), 김진길 2(94), 김창현 3(178), 박용섭 4(201), 서청수 2(186), 유정일 2(50), 윤석찬 2(155)
- ▶ 29기 김강식 2(259), 김광석 4(30), 김태영 4(58), 박성훈 2(167), 박태용 2(146), 이상일 2(202), 이규구 2(129), 임국기 20(150), 임성호 2(178), 최인철 2(140), 현태식 2(164)
- ▶ 30기 김중권 2(98), 김홍빈 5(15), 김효성 2(58), 남진오 2(69), 이병길 2(33), 이진 2(163), 임상달 2(133), 주경호 3(128), 홍성범 2(51), 함민호 2(114)
- ▶ 31기 권동호 4(88), 김민식 4(126), 김영태 2(195), 김태희 2(23), 김희업 2(240), 염환수 2(150), 이재춘 2(224), 이훈복 2(62), 최대집 2(60), 전경민 2(47)
- ▶ 32기 권관덕 4(342), 김화용 2(127), 사인우 2(149), 송진수 5(100), 안태환 4(22)
- ▶ 33기 권해욱 4(48), 김상선 2(174), 김성근 4(172), 김현규 4(420), 남석진 2(151), 노일 6(206), 인경일 2(248), 안준영 6(161), 이정표 6(119), 조재봉 2(124), 홍종원 2(45)
- ▶ 34기 강훈211, 김기수 2(194), 김민오 12(12), 김승선259, 김홍식6477, 이무이 2(418), 임창훈 2(94), 정동민 2(219), 정찬근 2(120), 정충환 2(70), 조수창 2(195), 홍영기 2(39)
- ▶ 35기 김경철 2(23), 김수열 2(83), 박병준 6(350), 박상현 2(42), 박시근 2(197), 송명성 4(88), 이문희 2(163), 이호선 6(52), 임창규 2(121), 장춘삼 2(158), 전성광 2(52), 정병삼 3(164), 정영석 2(119), 정호준 4(122), 하중수 2(39), 한중훈 4(395), 황재혁 10(21)
- ▶ 36기 김도희 4(82), 김동혁 2(103), 김현 2(142), 안경무 6(310), 양현승 2(219), 이광희 2(164), 이규호 2(129), 임종수 2(84), 장세호 2(215), 정우철 2(150), 조동권 2(231), 진연수 2(175), 강성봉 2(181), 김양훈 6(279), 김충기 4(175), 김홍년 2(246), 노진철 2(160), 문장권 2(34), 송석봉 4(179), 송용섭 4(313), 엄태환 2(4), 옥원호 2(146), 이관모 2(152), 이웅구 4(88), 이원형 4(303), 이희석 2(131), 임민철 2(167), 전성진 2(141), 정우진 2(84), 정태욱 4(142), 정희철 2(140), 최정호 2(52), 최하용 6(99), 함성규 2(117)
- ▶ 37기 김대현 2(37), 모을하 7(245), 문정민 2(130), 문현성 2(243), 서성걸 2(87), 이경식 2(191), 이정용 2(254), 위재익 4(101), 정한욱 2(222), 함기훈 2(98)
- ▶ 39기 권웅 2(57), 김의진 2(139), 김인경 2(97), 김지훈 4(115), 박철근 2(133), 송진근 2(132), 송창현 4(139), 심용운 2(102), 양운차 2(80), 이태화 2(225), 이용렬 2(121), 이준석 2(89), 장동준 2(87), 정대겸 2(40), 최현철 2(286)
- ▶ 40기 구자운 4(199), 김백련 2(212), 김민우 6(286), 김우형 4(34), 김종욱 2(53), 김형수 2(189), 남태근 2(48), 박상규 2(66), 박진하 2(105), 송석준 2(150), 유형선 2(96), 이호연 10(758), 이훈석 2(72), 최창국 2(108), 하성남 5(17)
- ▶ 41기 권영철 2(79), 김석진 10(308), 박한지 2(199), 방현욱 2(89), 손영민 2(173), 손종득 2(107), 임성은 4(145), 전종상 10(267), 정기재 2(199), 최민규 4(137), 최인혁 1(82), 최지능 2(222)
- ▶ 42기 강구한 2(30), 강재석 2(117), 강정희 2(166), 공광석 2(72), 김동우 2(140), 김동진 2(109), 김용민 2(76), 박용준 6(70), 박효찬 2(166), 손병현 2(184), 윤희철 2(160), 이광호 2(83), 이기욱 2(107), 이승은 2(166), 이용학 2(169), 정민기 2(159)
- ▶ 43기 강민식 4(266), 김용태 2(105), 김민중 2(250), 노창래 2(57), 박희영 2(73), 배동직 6(178), 백두산 4(262), 엄태섭 2(58), 이도훈 2(141), 이상민 2(157), 이용희 4(249), 이준맹 2(94), 이호선 2(96), 최진호 4(111), 허광석 2(105)
- ▶ 44기 김대는 2(117), 김승돈 4(22), 김인찬 2(58), 권용혁 4(56), 서동준 2(152), 엄태현 2(105), 오승우 6(79), 이민재 2(144), 이영민 2(153), 이희성 2(166), 최재균 2(84), 황재혁 2(43)
- ▶ 45기 권기호 2(147), 김동호 2(155), 김성수 4(133), 박영일 2(150), 서석관 4(164), 신우철 2(140), 이인권 2(95), 이진희 4(154), 정재현 2(151), 정진우 2(152), 채희용 2(130), 최충수 2(153), 황승세 2(151)
- ▶ 46기 강승웅 4(282), 김대영 2(53), 김명철 2(139), 김정렬 2(139), 김정호 2(256), 김진용 2(173), 박수만 2(45), 백인정 2(139), 송원상 4(228), 오기리 2(137), 이상운 2(139), 이신화 6(30), 이수원 2(142), 이진철 2(130), 정종택 6(419), 조광영 2(77), 조수만 2(101), 차승우 2(101), 표상열 2(139), 한영인 2(139), 홍한표 2(130), 황순창 2(139)
- ▶ 58기 황영호 6(57) ▶ 59기 이용훈 10(35)
- ▶ 47기~57기 자동이체 기부('22. 8. 31~'22. 10. 31 기부현황)

기수	47	48	49	50	51
명(만원)	59(115)	68(139)	83(180)	40(86)	12(27)
52	53	54	55	56	57
294(590) 238(504) 248(524) 374(824) 334(727) 313(746)					

▶ 지면제한으로 47~57기 기부현황을 기재 못한 점 양해바라며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 하니 참고바랍니다.

충성대의 가을을 수놓은 모교사랑 릴레이

2022년 충성대의 가을은 그 어느때 보다 모교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한 졸업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9월 23일 3사19기 입관 40주년, 28기 30주년을 그리고 10월 14일 29기 30주년, 37기 20주년, 47기 10주년 기념행사를 학교교정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그동안 코로나가 막아 놓은 모교에 대한 그리움은 여건이 완화된 자 흠케어 행사를 통해 많은 졸업생들의 방문으로 이어져 오랜만

에 학교교정이 활기로 가득했다. 모교를 찾는 각 입관기금 동지회들은 후배생도들을 위한 위문금 전달과 별도로 실질적인 학교 및 후배들 교육발전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쾌척하여 학교도약에 든든한 토양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어 주었다. (19기 1000만원, 28기 1000만원, 29기 1000만원, 37기 1500만원, 47기 1000만원) 이는 시간생도와 학교에 전하는 졸업생들의 학교발전 염원이라고 생각하며 아들로 인해 2022년 충성대의 가을은 어느때 보다 풍성하였고 모교사랑 릴레이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19기 입관40주년  
1,000만원 기부

28기 입관30주년  
1,000만원 기부

29기 입관30주년  
1,000만원 기부

37기 입관20주년  
1,500만원 기부

47기 입관10주년  
1,000만원 기부

<p><b>발전기금 참여 안내</b></p>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p>•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p>	
	<p>※ 기부자 정보 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p>	